

SUNBO NEWS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6년 11월 15일

vol. 154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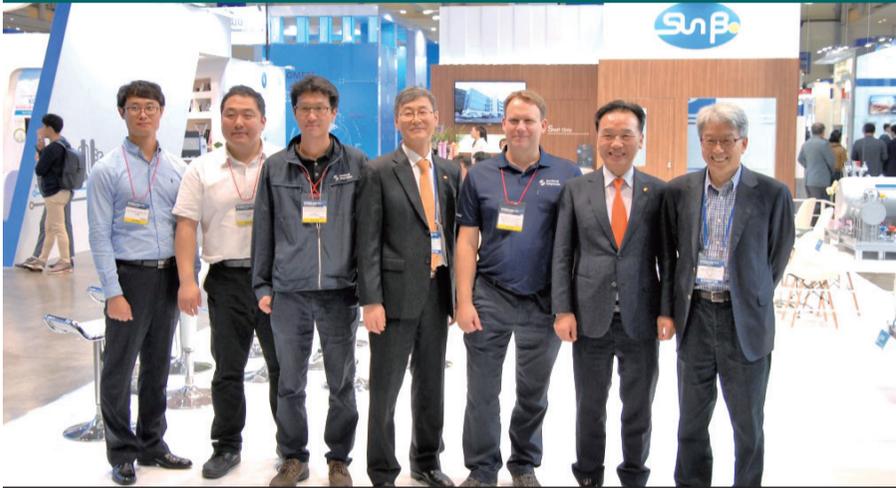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소식

2016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16) 및 APGC 2016(Asia Pacific Gas Conference 2016) 참가, 새로운 판로개척 성과 거둬



2016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16)



우리 회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된 '2016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16)'에 참가했다. 이번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벡스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TRA, 경연전람, KIMEX Group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국내외 유수의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이 해양플랜트 장비, 기자재, 엔지니어링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 전시회를 비롯하여 기술 컨퍼런스, KOTRA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올해 전시회에는 세계 31개국에서 421개 관련 기업이 1천 112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이번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3대 조선사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의 참가로 외연을 확장했다. 또한,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해양플랜트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과 전시회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따라 중동의 오일메이저 등 해외 대형 바이어가 대거 방문했다는 것이 올해 전시회의 특징이다.

우리 회사 부스는 전시 첫째 날에 개최된 VIP 개막식의 동선에 포함된 덕분에 부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많은 귀빈이 부스를 방문했다. 사업기획팀 최영찬 차장(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은 우리 회사 소개 및 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하며, 해양플랜트 Modularization사

업 및 ECO Ship 사업 분야에서 우리 회사의 역량을 강조했다. 바이어들은 우리 회사 부스에 마련된 VIP 미팅룸에서 LNG사업 시황 및 프로모션을 위한 잠정적 협력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일에는 컨벤션홀 1층에서 열린 GOMP(Global Offshore & Marine Plaza) 2016 수출상담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었다.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LNG 부문 협력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유·무형의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우리 회사는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참가에 앞서 10월 4일에서 6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APGC 2016(Asia Pacific Gas Conference · 아시아태평양 가스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가스산업 전 밸류체인(Value Chain)을 포괄하는 국내 유일 가스 관련 국제회의 및 전시회인 APGC에서 우리 회사는 LNG FUEL GAS SUPPLY SYSTEM을 전시·홍보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해양업계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진출은 물론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다양한 조선해양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연구·개발해온 제품을 성공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기존 및 신규 고객과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한 새로운 활로가 될 전망이다.

방문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방문 지역 인력양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



10월 26일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우리 회사에 방문했다. 이태희 청장은 최금식 대표이사와 사하구 채용박람회장 순회를 마친 후 우리 회사를 찾아 다대2공장 PRS설비와 본사 홍보관을 견학하고 설계실을 찾아 설계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임직원 간담회에서 이태희

청장은 기업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 모색과 더불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모범근로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되어, 장철민 대리 and 이현우 대리가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사하구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 mismatch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수상

일·가정 양립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선진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



우리 회사는 10월 19일 해운대 센텀호텔 4층 연회홀에서 열린 '2016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고, 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향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우리 회사는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이룬 대표 사례로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선진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 서겠다'는 실천 서약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납품소식

D2447, D2448 HP(High Pressure) Compressor Package **납품 완료**

우리 회사는 Burckhardt Compression(버카드 컴프레션)사(社)에서 수주받은 D2447, D2448 HP Compressor PKG를 제작 완료했다. D2447 HP Compressor PKG는 10월 17일~19일까지 3일간 고객사와 FAT (Factory Acceptance Test)를 진행 후 11월 2일 대우조선해양으로 출고되었다. 이어 D2448 HP Compressor PKG는 11월 10일 삼우중공업으로 출고되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부터 스위스의 가스 콤프레셔 대표 기업인 Burckhardt Compression으로부터 수주받은 High Pressure Compressor Package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총 12개 호선에 장착될 HP Compressor PKG는 현재 7~10월에 걸쳐 2449, 2450 및 2451호선의 HP Compressor PKG를 납품 완료하고, 11월에는 2447, 2448호선의 HP Compressor PKG를 제작 완료하여 납품했다.

High Pressure Compressor는 천연가스(NG: Natural Gas)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이다. 극저온 기술 / 고압가스 운용 기술 등이 복합된 시스템이다.

최근 수년 전부터 연료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환경 친화에 강점을 둔 친환경 선박 건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해당 기술 분야의 세계 조선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납품소식

N2865 GAS VALVE ENCLOSURE **성공적 출하**

우리 회사는 GAS VALVE ENCLOSURE를 10월 25일 ~10월 26일 다대1공장에서 제작 완료하여 11월 초 현대중공업으로 출하했다.

GAS VALVE ENCLOSURE는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에 설치되는 BOILER로서 -180°C 의 LNG를 액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이다. LNG를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0°C 내외의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LNG선이 적도 등의 따뜻한 바다를 운항하거나 극지방과 같은 추운 지역을 운항할 경우에는 부득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바닷물의 온도를 LNG 기화 환경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이때 REGAS BOILER를 가동하게 되는데, REGAS BOILER의 연료로는 OIL을 사용하거나 GAS를 사용한다. GAS VALVE ENCLOSURE는 REGAS BOILER의 연료로 BOG(Boil-Off Gas)를 사용할 경우 REGAS BOILER 전단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BOG의 온도, 압력, 사용량 등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BOG는 강한 폭발성을 가지기 때문에 LNG 탱크 내부의 온도와 압력뿐만 아니라 가스 누설 여부를 지속

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항해 중에는 가스압축기와 열교환기 등을 작동시켜 증발가스를 처리하여 LNG선 탱크 내부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GAS VALVE ENCLOSURE는 선박 장치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조선업의 경기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기술력을 통한 수주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의 새로운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는 LNG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위기 극복 로드맵을 실천하고 있다.

회사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함께 데모데이(Demo Day) 개최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 기술 소개

10월 12일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부산연구개발특구 공동주최의 데모데이 행사가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기반 스타트업 전문 투자기관이자 액셀러레이터다. 이번 데모데이는 부산시 정기풍 경제특별보좌관,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보엔젤이 보육·투자한 창업 기업과 혁신기술을 가진 연구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및 제품을 정부관계자,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엔젤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투자자관계·기업설명회(IR(Investor Relations)) 행사는 융합, 혁신, 창조 3가지 주제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융합'에서는 동남권 제조사업과 혁신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스마트십, 에코십 등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스타트업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인 '혁신'에서는 기존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술기반의 창업팀의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 순서인 '창조' 세션에서는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의 설명회가 이어졌다. IR 행사 종료 후에는 '파운더스 하우스 13 엔젤 클럽'의 발대식을 가졌다. 파운더스 하우스 13 엔젤클럽은 지역 내 중견기업 2, 3세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엔젤클럽으로,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투자 및 멘토링을 진행해 육성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이다.

2016년 2월 설립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연계형 R&D 지원 사업 운용 기관으로 참여해 동남권 스타트업의 원활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는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동남권 제조 인프라 기반에 혁신기술과 상상력이 더해져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동남권이 스웨덴 말뫼와 같은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 허브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내복지



선보가족 리사이클링아트(Recycling Art) 체험 프로그램 진행 '철(鐵)로 만드는 가치예술' 전시회 작품 공개

10월 22일 주말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선보가족 6가구 20명(자녀 13명, 배우자 1명)이 본사 교육장에서 열린 리사이클링아트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다. 체험 행사를 위해 사하구 평생학습관과 가치예술협동조합에서 강사 지원에 나섰고,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청년 캠페인'에 참가 중인 동아대학교 대학생 홍보단 로그인팀이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일하는 일터를 소개하고 부모와 함께 고철 등의 폐자재를 활용하여 생활 예술품을 손수 만들어 봄으로써 가족과의 유대감을 북돋움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자녀들은 폐자재를 직접 손질해 작품을 만들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체험장을 찾은 최금식 대표이사는 "선보가족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친화문화를 경험하고 이후 성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준다면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가족친화사회로 발전돼 나갈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날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가오는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당리 지하철역에서 '철(鐵)로 만드는 가치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되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회사소식

희망이음 대학생 기업탐방단 우리 회사 찾아



10월 27일 부산테크노파크의 안장근 과장 및 부산 지역 4개 대학의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희망이음 기업탐방단이 우리 회사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통해 청년들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수도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구직현상 완화 등 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상생하는 구인·구직 매칭프로그램이다. 우리 회사 본사에 도착한 희망이음 기업탐방단은 홍보관 견학 후 의전실에서 사업기획부 김정욱 상무이사, 경영지원부 서재욱 상무이사과 다과회를 가지며 우리 회사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 HRD팀의 고연주 주임이 회사소개를 진행했고, HRD팀 김정석 차장과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희망이음 기업탐방단은 본사에서 진행된 일정 이후 구평공장으로 이동하여 현장 견학을 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 탐방을 마쳤다.

회사소식

최금식 대표이사 '2016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총회' 참석



10월 6일 최금식 대표이사는 사하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한 '안전문화운동 사하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민간대표로서 이경훈 사하구청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노승중 사하구위원을 비롯해 약 20명의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했다. 총회는 사하구청장과 최금식 대표이사의 인사말,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추진실적 보고, 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016년 사하구 안전문화운동은 사하구 관내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4대 분야(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8개 실천과제(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아동 및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하, 자살예방 사업, 1가정 1안전요원 만들기, 구민안전 체험교육,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의 안전인 재난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관리시설 점검 등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헌혈로 사랑 나눠요” 사랑나눔 헌혈행사 진행



11월 4일 다대1, 2, 3공장에서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헌혈버스가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헌혈한 혈액은 고액의 수혈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생명존중 이념 확산을 위해 매년 2회 진행되는 헌혈행사는 12월 구평공장에서 시행되어 이웃사랑에 따뜻한 마음을 더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에 앞장선 선보인들, 감사합니다!

다대1공장

품질경영	박상계 부장	설계	허 용 계장
품질경영	박상언 과장	설계	남예철 계장
품질경영	이현수 과장	플랜트설계	전형주 계장
설계	유병창 과장	기술영업	이윤혜 사원
설계	고동욱 계장	경영지원	김태훈 사원

다대2,3공장

생산관리	여태웅 차장
생산관리	석종현 대리
조립반	지기환 팀장
조립반	이도희 팀장

회사소식

‘싱겁게 먹는 사업장 만들기’ 캠페인 실시



10월 18일 우리 회사 본사 식당에서 사하구청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싱겁게 먹는 사업장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급식 메뉴인 소고기뭇국에 대한 염기도 평가에 약 100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40여 명의 직원이 5가지 종류의 시료를 통한 짠맛 미각 테스트로 저염 선호여부를 파악해보았다. 자신이 평소 얼마나 짜게 먹는지, 현재 식습관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식당 관계자들 또한 저염 식단 실천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사랑의 반찬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이 더욱 뜻깊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주자는 취지로 밑반찬을 지원하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월 두 번씩 직원들이 직접 반찬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때도 반찬은 저염식으로 만들고 있다.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 것이다. 10월에는 품질경영부 및 기술개발부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정성껏 준비한 반찬 도시락을 다대1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사내복지

2016 을숙도 마스터피스 콘서트 ‘멘델스존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람



10월 20일 선보가족이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멘델스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관람했다. 지휘자 윤상운과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고, 첼로 협연은 김선영 총신대 교수, 예술감독인 김원명 경성대 교수가 해설을 맡았다. 일반적인 공연은 주로 서곡으로 시작한 데 비해 을숙도 마스터피스 콘서트는 지역 작곡가의 창작곡을 첫 곡으로 연주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전욱용이 창작곡으로 ‘Fragment for Orchestra’를 선보였다. 이후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작품 104’,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이 연주되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에 의의를 둔 풍성한 클래식 공연이 되었다. 우리 회사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 및 가족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이동준(11.02) 박재용(11.02)
- 이윤혜(11.12) 김대관(11.12)
- 장호길(11.15) 고중현(11.16)
- 박수영(11.16) 신유철(11.18)
- 임민지(11.18) 이순복(11.20)
- 강민구(11.26) 박대성(11.27)
- 김수환(11.28) 안대준(11.30)

- ☑ **구평공장** 안진원(11.09) 김희욱(11.10)
- 양정수(11.17) 안기환(11.19)
- 로 니(11.20) 김준석(11.25)
- 권혁인(11.29)

- ☑ **영도공장** 박선우(11.01) 박일수(11.03)
- 윤창일(11.05) 유대성(11.06)
- 박현일(11.08) 화화정(11.10)
- 최동욱(11.15) 허만도(11.15)
- 이영곤(11.16) 양병철(11.17)
- 위경군(11.18) 김대성(11.19)
- 박철우(11.19) 이영철(11.22)
- 김용보(11.24) 최현창(11.26)

- ☑ **군산공장** 이의성(11.22) 고낙범(11.23)

- ☑ **영암공장** 박성기(11.01) 김환수(11.03)
- 리산타(11.26)



상사 기념일

- ☑ **본사** 배승용(11.01) 김민성(11.01)
- 최원석(11.01) 이현수(11.01)
- 이종필(11.01) 김진형(11.04)
- 김주명(11.04) 박수영(11.04)
- 남예철(11.04) 정선영(11.04)
- 정제경(11.05) 정혜성(11.16)
- 김도윤(11.16) 박현철(11.17)
- 로 힘(11.22) 전형주(11.23)
- 최순찬(11.24) 김충민(11.25)

- ☑ **영도공장** 이정훈(11.01) 김태경(11.13)

- ☑ **군산공장** 이병규(11.07)